

01. ④ 白頭翁湯 -> 黃連阿膠湯
02. ④
03. ② 瘕門, 勞宮, 三陰交, 湧泉, 太谿, 中脘, 環跳, 足三里, 合谷
04. ③
05. ①
06. ⑤
07. ⑤

증상	외상	내상
오한	센불을 가까이해도 없 어지지않음	좀 따뜻하게 하면 없 어짐
오통	풍한을 견디지 못함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면 없어짐
발열	끓이지 않고 열나다가 해질 무렵 심해짐	났다 내렸다하며 옷을 벗으려함
신통	모든 뼈마디가 다 아 프다	팔다리를 쓰지못하고 나른하여 놀기 좋아함
한열	추워하는 것과 열나는 것이 같이 나타나며 심하게 나타남	추워하는 것과 열나는 것이 약하게 나타나며 간격을 두고 나타남
두통	계속 아프다가 전경되 면 사라짐	때로 아팠다 때로 멎 음
기력	힘이 난다	기력이 약하고 피곤
수심	손등에 열남	손바닥에 열남
변갈	속으로 들어가면 심한 갈증	사기가 혈액속에 있어 갈증없거나 있어도 심 하지 않음
구미	잘먹지 못하나 음식맛 은 안다	먹으나 맛을 알지 못 한다
숨쉬기	코막히고 콧물흐르며 목소리가 탁하고 숨쉬 기 힘들다	원만히 숨을 쉬나 고 르지 않음
말하기	높고 힘 있으며 처음 에 가볍다가 나중에 무거워짐	말소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며 말하기 싫어함

08. ①
09. ②
10. ④
11. ①
12. ⑤
13. ③
14. ②
15. ①
16. ①
17. ②
18. ④
19. ④
20. ②
21. ④
22. ③
23. ⑤
24. ④
25. ② 心包命門說 (= 命門心包絡設): 金 劉完素,
明 李梴, 朝鮮 李圭駿
26. ③
27. ②
28. ③
29. ①
30. ③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黃柏, 知母)
31. ⑤
32. ② 遠志-去心
33. ③
34. ⑤
35. ①
36. ⑤

37. ③ 착간파: 방유집, 유창, 오겸

구론파: 장수진, 장지충, 장석순, 진념조(진수원)

38. ② 大醫精誠

39. ⑤

40. ①

예로부터 명현들이 병을 다스림에 많은 경우 생명(살아있는 생물)을 써서 위급함을 구제하였는데, 비록 천한 것이 가축이고 귀한 것이 인간이라 말하지만, 명을 받음에(목숨이 아까운데) 있어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한 가지이다. 남을 손해 입혀 자신에 이익 되게 하는 것은 만물의 정서가 동일하게 싫어하거늘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무릇 살생하여 生을 구하면 生으로부터 거리가 더욱 멀어지니 내가 지금 여기 처방에 살아있는 것으로 약을 삼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맹충이나 수질과 같은 것은 시장에서 이미 죽은 것이니 그것을 사다가 쓰는 것은 이러한 예에 들지 않는다. 단지 계란과 같은 물건은 혼돈하여 나뉘지 않았으나, 반드시 크게 중요하고 급한 곳이 있어야만 부득이하게 참고 쓰는 것이니, 능히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큰 哲人이니 이 또한 미치기 어려운 바이다. 가령 瘡癰나 下痢로 냄새가 지독하여 쳐다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은 보기 싫어하는 환자라도 민망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우리 의사들의) 뜻일 지어다.